

2022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4월호>

(주제: ESG, 환경(E)과 청렴윤리경영)

COVER STORY

제품의 생산과 판매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경영활동을 넘어,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기업경영 트렌드로 부상한 ESG경영 중 환경에 대한 부분과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ESG, 5월호 사회(S), 6월호 지배구조(G)로 이어집니다.

전문가 코칭

ESG, 환경(E) 경영의 특징과 대응 방안



김 승 원 교수
계명대 공중보건학전공

Q1. ESG경영과 관련하여 환경(E)을 고려한 경영활동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속가능경영의 필수 요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아우르는 ESG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며 대면하는 리스크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존의 경영환경에서는 재무적 리스크들이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문제, 오너의 갑질 사건, 안전 사고 등 비재무적 이슈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ESG 중에서도 오늘은 E(환경)를 고려한 경영활동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환경은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얼핏 보면, 환경과 기술 발전은 반비례적인 관계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의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이다. 그중 하나인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예로 들자면, 저탄소 원료의 활용 및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을 고려한 경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자원과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을 고려한 경영활동은 단기간에 목표를 성취하기 어렵다. 이는 위의 특징과 연결되는데, 제조업에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생산하려면,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제품 자체를 바꾸거나 생산시설 전반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은 장기적 목표를 단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경영은 전세계적인 기조이고, 점차 무역장벽으로까지 작용하는 흐름 속에서 어느 기업이 먼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67.4%가 올해 ESG 중 환경에 가장 집중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의 이슈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E(환경)는 기업 내부적으로 안전보건 문제와도 연결된다. 제품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공해 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안전보건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직업성 질병에 적용된 첫 사례인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집단중독사건'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환경규제를 피해 세척성분을 계속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보건 이슈이다. 즉,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이 생산시설 외부에서는 환경문제이지만, 생산시설 내부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것이다.

Q2. 기업은 ESG 경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SG 경영은 한국의 경제성장 신화처럼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선 중요한 것은, ESG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강한 의지라고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심과 의지는 투입하는 인력과 자금을 비례하기 때문이다. ESG 경영을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싶다면, 기업의 자원과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능력과 기술적 이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 정책상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데 급급하여 관련 규제에 떠밀려가기보다는 기업이 주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 접근성 증가, 브랜드 평판 향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로 볼 때, ESG 경영은 계속해서 이어질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돌보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역사적 흐름은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게 되었고, 기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돌보기에서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사명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파타고니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환경 부문에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원단을 포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쓰레기, 그리고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에너지까지 기록하여 이를 '발자국 연대기(Footprint Chronicle)'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신뢰하며 이용한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도 설립 당시부터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는 암벽등반에 사용되는 강철 피톤(piton, 못의 일종)을 여러 모델로 개발하여 전 세계 시장에 보급하였는데, 이것이 암벽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강철 피톤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이본 쉬나드는 환경·사회적 가치와 영업이익 사이의 갈등을 체감하게 됐고, 이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철 피톤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1976년 미국 특허로 등록되어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영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경영활동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경영철학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본 쉬나드의 경영철학은 파타고니아 창립 멤버이자 '발자국 연대기' 프로젝트 담당자인 빈센트 스텐리(Vincent Stanley)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는 2021년 한 인터뷰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비용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투자로 바라 볼 필요가 있었으며, 환경목표는 장기적 손익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 쓰레기 절감 등으로 비용을 줄이고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러한 파타고니아의 경영철학이 혁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이 기회가 다시 매출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선순환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2. 로열더치셸

로열더치셸(이하, 셸)은 나이지리아 원유 유출사고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다 악덕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일어난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 지역의 원유 유출사고에 대해 주민들이 기름을 훔치려고 송유관을 절단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두달 동안이나 기름 유출이 지속되는 동안 어떠한 초기대응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셸은 이 지역에서 석유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셸은 2015년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1만 5천 6백여 명에게 3천 3백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이지리아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셸은 ESG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전략, 지속가능 리포트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나이지리아 관련 항목을 별도로 게재하였다. 이 항목에는 나이지리아 현지 자회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양, 유출 감지 시점부터 정부규제 기관의 인증까지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1995년부터 셸은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기름 유출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지역에 진출한 정유사 중 기름 유출 데이터를 공개한 것은 셸이 처음이다. 셸은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천명했다. 셸은 2016년 신에너지 부서를 발족해 신에너지 사업 다각화를 추진중이며, ESG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셸은 이미 2016년에 '신에너지(New Energies) 부서를 발족하고 관련 투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연간 20~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투자금 중 80%를 전력 부문에 집중하며 '석유·가스'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회사'로의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와 석탄 비중을 줄이면서,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인데, 네덜란드 북해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미국, 동남아, 오만 등에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추진 등이 그 예이다. *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KOTRA, Global Market Report 21-026

3. 풀무원

풀무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한 '2021년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대상을 수상하였다. 식품기업 중 5년 연속 ESG 통합 A+등급을 획득하며 2021년에는 ESG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점에서, ESG 경영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풀무원은 2019년 다우존스가 평가하는 '지속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식품

산업 부문 116개 글로벌 식품 기업 중 6위에 랭크, 2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이 ESG 경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2017년부터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풀무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태양광 온수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 설비에도 투자하고 있다. 풀무원이 자사 공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냉난방 설비를 통해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로이다. 또한 풀무원은 제품 1톤당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2020년 기준 155.2kgOE로 전년대비 2%를 줄였다.

또한, 비영리 공익법인 '풀무원재단'을 설립해 식품기업이라는 기업의 성격에 맞게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라는 3대 영역을 설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ESG 경영활동에서 풀무원의 이와 같은 성과는 꾸준한 환경 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보고서리뷰

그린워싱 사례(글로벌 금융회사)를 통해 본 ESG의 방향성

- 우리금융연구소(2021).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시사점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실제로는 친환경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자본이 ESG 금융상품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린워싱 논란이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를 살펴보면 향후 ESG 경영활동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1. 그린워싱(글로벌 금융회사) 사례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그린워싱 행위로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 허위공시

DWS(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는 전체 운용자산의 50%가 ESG 관련 자산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기준에 부적합한 펀드를 ESG 상품으로 분류하여 ESG 투자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허위공시는 기업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이다.

2) ESG 실천 미흡

- 사례1. Vanguard : Vanguard는 ESG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구금, 애플 등에 투자하면서 테크핀 ETF를 ESG로 명칭만 변경하여 비판을 받게 되었다.

* 테크핀: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e)의 합성어, 정보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혁신을 의미

- 사례2. Franklin Templeton : Franklin Templeton은 ESG와 무관한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ESG 경영추진 행동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사례3. HSBC와 JPMorgan Chases : HSBC와 JPMorgan Chases는 ESG 경영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기업의 주요 자금공급처 역할을 함으로써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다.

2. 그린워싱 확산의 원인

보고서는 그린워싱의 발생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그린(ESG)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규제 미비, 둘째 금융회사의 단기성과주의가 그것이다. ESG를 투자와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게 그린워싱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ESG 경영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검증과 예방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린워싱 발생 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Nordea Bank가 그린워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방안들을 들 수 있다. Nordea Bank는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투자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였고, 그리고 ESG 상품 개발 시 할 때 금융보다는 환경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면서 ESG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그린워싱 최소화 방안을 요약하자면 정확한 내부 정보공개 프로세스 구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확충,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성과를 지향하는 경영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지만,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ESG 경영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위의 방안을 내부시스템에 적용하여 그린워싱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린워싱(글로벌 금융회사) 논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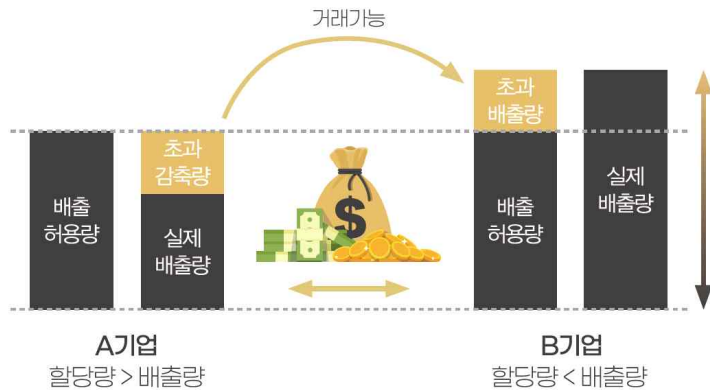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논란은 ESG 경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기업이 어떠한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한다.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기업의 경영 목표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체크포인트

배출권거래제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월)"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월)"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의 여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및 할당방식

-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자발적으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이다.
- 할당방식은 과거배출량 기준 할당(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BM, Benchmark)으로 구분한다.
 - GF :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 방식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업이 더 많은 할당을 받게 되나,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BM : 제품 생산량이 동일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할당을 함으로써,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에 따라 크게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였다면, 제2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거래제를 확대한 시기, 현재는 제3기로 신기후체제를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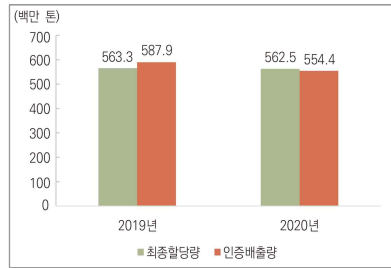
구분	제1기('15~'17년)	제2기('18~'20)	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차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무상: 97%, 유상: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무상:90%, 유상: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출처: 한국환경공단>

4. 배출권거래제의 성과와 지원 대책

2020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총 636개로, 최종할당량은 562.5백만톤(전년 대비 0.2% 감소), 인증배출량은 554.4백만톤(전년 대비 5.7% 감소)으로 할당량과 배출량 모두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출권거래제는 결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배출권 유상할당 및 과징금으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여 국내산업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 개선	온실가스 배출저감 수준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 사업 지원
에너지 효율 제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기업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상용 장비 효율개선 사업 지원
감축 신기술	기업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금융연계 재원조달	모태펀드 조성, 금융상품 출시 지원 등

<출처: 환경부>

참고: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https://www.gihoo.or.kr/portal/kr/biz/kyoto.do>
 환경부,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19. 12. 30.
 환경부, (보도자료)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2022. 3. 8.

뉴스 클립

국내 동향

1. 국내 온실가스 배출 1위 '철강산업', 이대로면 탄소중립 불가

현재 탄소중립 정책이 철강 산업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국내 산업분야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철강 산업에서 30년간 온실가스 26%를 줄이는 데 그치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KAIST 교수팀과 환경단체의 '한국 철강 부문의 2050 탄소중립 경로: 한국형 통합평가모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1억 100만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산업 부문의 39%, 국가 전체의 13.1%를 차지한다. 한 연구원은 "철강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높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제철 기술 투자,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같은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노력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중앙일보, 2022. 03. 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288>

2. 나이스신평, 기업 ESG 평가방법론 발표...5등급으로 분류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가 22일 기업 ESG 평가방법론을 발표했다.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성과와 위험·기회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총 22개 평가 요소를 마련하였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환경친화적 제품·공정, 환경 관련 규제 영향, 환경 경영 정책을 중점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해당 평가방법론에 대하여 나이스신용평가 투자평가본부 ESG 사업실장은 "ESG 경영 성과에 대한 등급 산출만이 아니라 기업의 ESG 경영 활동과 관련된 위험·기회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시장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2022. 03. 22.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203222013r>

1.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낮추자"...각국 '에너지 확보전' 본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은 카타르와 장기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며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 낮추기에 돌입했고, 아시아 국가들도 글로벌 원유 생산량 결정을 주도하는 중동 국가들에 앞다퉀 손을 내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 석유기업들에 대한 추가 이익 과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하벡 장관은 "올해는 러시아산 가스가 필요하겠지만 미래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참고: 경향신문, 2022. 03. 17.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3211716001>

2. EU,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안'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급망 상의 인권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안(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식 제안했다. 지침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발효되며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2년 안에 지침 내용을 국내법으로 전환해 적용해야 한다. 지침안은 유럽의회 요구를 반영해 실사 범위를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고 기업의 민사책임 및 기후변화 대응 실사 의무를 일부 인정한 반면, 지침 적용대상을 1% 기업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지침 관련 유럽의회 보고서를 기초한 라라 볼터스 의원은 "기업 규모와 공급망상 인권 침해 및 환경 훼손과 무관하다"면서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유럽 최대 업계단체 비즈니스 유럽은 지침이 간접 공급자를 실사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세계에 산재한 공급망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EU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고: 한국무역신문, 2022. 03. 02.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79208>

제43회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

환경산업기술 분야 및 탄소중립 분야의 국내 최대 B2B 환경기술 전문 전시회

주최 :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협회

일시 : 2022년 6월 8일 ~ 10일(10:00 ~ 18:00)

장소 : 서울 COEX A

참고 : <http://www.envex.or.kr>

Was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2022

제11회 폐기물 관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환경 및 경제적 영향에 관한 국제 회의

주최 : Wessex Institute,

일시 : 2022년 6월 7일 ~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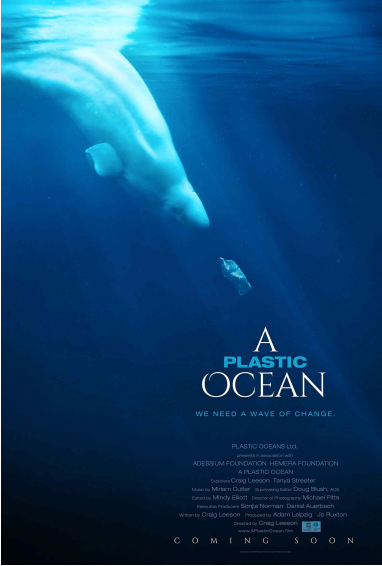
방법 : 온라인 스트리밍

참고 :

<https://www.wessex.ac.uk/conferences/2022/waste-management-and-environmental-impact-2022>

문화 속 기업윤리

인간의 편의가 집어삼킨 해양 생태계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바다를 삼키다'



강에 버려진 쓰레기, 어선이 남기고 간 부표와 폐어망 등은 해류와 바람을 타고 흘러 북서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었다. 이 쓰레기섬은 우리나라의 약 14배 크기로, 대부분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 쓰레기들은 해조류 또는 다른 플라스틱과 부딪혀 작은 조각으로 분리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먹이사슬에 따라 다양한 바다생물의 뱃속에 쌓인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바다생물은 그대로 우리의 밥상에 올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라앉는 섬'으로 알려진 투발루의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해류를 타고 밀려든 쓰레기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는 자국과 주변국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소각하며 발생하는 유독가

스로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원인을 제공한 인간이 그 위협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셈이다.

심각해져 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는 탓이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비록 제대로 체감하지 못 하더라도, 환경이 오염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의 편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

웹툰 - 바로보는 기업윤리 <<다음장 수강신청안내>>

03. 그린워싱(green washing)



기업의 친환경 활동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기업은 홍보를 위한 친환경 활동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 2022년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간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교육 요청이 있어 민간 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청렴윤리경영 교육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담당자에게 4.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은 이메일(livecurious@korea.kr)로 송부, 선정기업 유선 통보 예정

<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교육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 2022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

- ① **운영 기간** : 2022년 6월 ~ 2022년 12월
*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예정
- ② **개설 과정**
 - 과 정 명 : 「찾아가는 기업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2시간 ~ 4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간 온라인(Zoom, 구루미 등) 또는 집합으로 운영
- ③ **주요 내용**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 국내·외 최신 동향
 - 청렴윤리경영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관리 방안
 - 윤리적 딜레마 해결 역량 강화

*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담당자(☎043-901-6144, 송두원 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 >

기업명	규모 ^①	업종 ^②	대상 (인원)	희망 일자 ^③	교육 방법	교육 장소 ^④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⑤
(예) 000	중견기업	제조업	임원 30명	'22. 0.0	온라인, 집합	서울, 본사 강당	홍길동	교육과	휴대전화 사무실

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 1, ②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③ 2022년 6월 이후 최소 2개 일자 기업, ④ 지역과 장소 동시 기재, ⑤ 담당자 사무실 및 휴대 전화 번호 동시 기재

독자 퀴즈

Q.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하는 용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는?

- ① 화이트 워싱
- ② 그린워싱
- ③ 블랙페이스
- ④ 플로깅

-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mail@innocrew.co.kr)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4월 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 ②

지난호 정답자는 이경진님, 지현정님, 주경덕님, 김진관님, 정한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